

대왕고래

대왕고래(학명: *Balaenoptera musculus*)는 역사상 가장 큰 동물 중 하나로 몸길이 32m, 체중 200 톤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. 밍크고래와 마찬가지로 케라틴으로 구성된 브러시 같은 고래수염을 사용해 매일 수 톤의 크릴을 걸러 입으로 보냅니다. 구시로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아래턱뼈의 길이는 6.7m 입니다. 이 아래턱뼈를 가지고 있던 고래의 몸길이는 25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

이 턱뼈는 50 년 이상 전의 원양 포경 때 포획된 고래의 턱뼈입니다(대왕고래의 상업 포경은 1966 년 이후 중지됨). 과거에는 구시로와 홋카이도 동해안의 기타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이 포경을 실시했습니다. 이 지역에서는 소규모 상업 포경이 2019 년에 재개되었으나 대왕고래는 여전히 보호종으로 남아있습니다.